주거환경개선지역 주민의 인지 및 애착 장소에 관한 연구
- 광주 양림동 지역 사례연구 -

Awared and emotionally attached places of residents living in a housing improvement district of Yanglim Dong, Kwangjoo

김 규 리* 이 연 숙** 김 주 석***
Kim, Kyulee Lee, Yeunsook Kim, Jusuck

Abstract

Necessity of paradigm change has been awared in urban redevelopment especially, in housing regeneration from uniform scratch without serious consideration about resident's lives to holistic approach based on local culture and residents' particip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community places recognized and attached by residents of a housing improvement district which was scheduled to be changed for improvement of the area, in near future. This research itself was considered as an resident participation technique.

Group interview at a field site was carried as the main research methodology. As results, valuable places cherished by residents were identified. Most of them could be explained in relation to religious leadership,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and democratic movement. In regeneration process those places which have a strong tie with residents needs to be deliberately considered as a target to be preserved rather than demolished. The places also play a role in diffusing a livable village making movement. The result is expected to be used to make a cognitive and emotional community map of residents which is meaningfully differentiated from just a physical and geographical map. The places, place recognition activities and diffusion movement for common appreciation can be a basic foundation for residents participation in improving their housing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in creating value added strategies for the area.

키워드 : 주민참여, 커뮤니티 맵, 주거환경개선지역
Keywords : Residents' Participation Technique, Community Map, Housing Improvement and Regeneration District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1)]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 동안 690만[1)]이 넘는 아파트를 대량으로 건설해옴으로써 주택의 양적 국면을 만족시켰으나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주거지 재개발의 경우 철거 후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식은 즉흥적인 재생의 효과를 주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외현적 재개발 뒤에 보이지 않게 내재된 수없이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할지에 대한 신중한 계획과 비전 없이 과속으로 건설되어왔다.

한편, 진정으로 좋은 주거지란 거주민들의 삶을 다각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는 것은 널리 인지되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고려가 재개발의 실행단계에서는 거의 반영되지 못해왔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불균형과 사회적 배제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으며, 국민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행복지수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민주사회 발달에 따라 하향식 정치에서 주민을 중심으로 상향식 정치를 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 지방선거로 시작되었고 따라서 도시 및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주민의견을 반영해야한다는 전체적인 공감대는 확산되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권리가 첨예하게 대립되며 단편적이고 즉흥적으로 좋아 보이고 또 이익을 추구하는 천편일률적인 개발로 인해 재정착률을 낮추는 문제 외에도 갖가지 주민갈등을 야기시키거나 사회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yeunsooklee@yonsei.ac.kr)
*** 연세대학교 밀레니엄환경디자인 연구소 연구교수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제2핵심과제 「사회 통합적 주거공동체 재생기술개발」(과제번호:2008-8-1033)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1) 2005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자료

실제 주민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전의 시대보다 좀 더 나아진 것은 주민설명회 및 홍보 등으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요식에 그치고 실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주민참여라는 것은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부터 계획이 최종 마무리되는 그 시점 이후에도 항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계획이 된 후 1~2회 걸친 설명회 등은 진정한 주민참여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앞으로 민주사회와 다원화사회의 역량이 커져갈 미래사회에서 주민들의 참여는 절대적이며 주민주도적인 문화의 시대로 도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와 주거재생 분야에 있어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급하고 이러한 패러다임을 실현시킬 자구책이 무수히 노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주민참여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합의 형성은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주민참여가 활성화된 일본에서의 마을 만들기 경험을 토대로 「마을 만들기 디자인게임」 매뉴얼을 저술한 사또 시게루(2005)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의 과정을 소개하였다. 먼저 제1단계는 참여마을 만들기의 출발점이 되는 마을에 대한 공통인식을 기르는 단계로서 마을의 자원을 발견공유하고 상호이해를 심화시키는 단계이다. 2단계는 마을 만들기의 목표이미지를 공유하는 단계로서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무엇이 가능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마을 만들기는 어떤 모습을 그려내는가에 대한 공통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3단계는 구체적인 사업을 하던지 마을의 어떤 표현을 하는지 룰을 만들던지 등으로 합의를 형성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2)]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마을 만들기 게임의 프로세스를 위해서 참여마을 만들기의 공통점인 마을의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간에 심화시키는 방법을 활용한 사례는 미미하다. 특히, 첫 단계인 마을 만들기의 공통인식을 기르는 단계로서 체계적인 시도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생을 위해선 주민들의 애착심을 파악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대한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사례로 하여 지역을 대표하고, 애착감을 느끼며 보존해야 할 장소를 추출하고 이들의 특성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주민참여 확산기반을 만드는 1차적 단계로서 이후 지역의 물리적 지도가 아닌 주민에 의한 커뮤니티맵을 작성하는 기초자료로 직접 활용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문헌고찰

본 연구는 주거지 재생 시 주민참여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의 주민들을 인터뷰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고 애착을 느끼며 보존할 장소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커뮤니티맵으로 발전하여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주거지 정비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 될 것이다. 이에 문헌고찰을 통해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참여의 방법, 그리고 구체적 주민참여 기법으로서 인지도, 플레이스맵, 커뮤니티맵을 살펴보았다.

2.1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사업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연구를 한 이창호, 임정민(2008)과 홍인옥(2008)의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개발은 공동주택방식과 현지개량방식, 두 방법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두 가지 방법 모두에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2007년 5월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재정비(Social renewal)로 공공이 참여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결정하였다.

거점확산형 정비 방식은 기존 전면 재개발 방식과 현지개량 방식을 결합한 형태로, 분할·순차적 개발 형태로 진행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을 확정한 후 해당 지역의 20%는 거점으로 개발하며, 공동주택, 보육시설, 경로당 등 기반시설을 계획한다. 순차적으로 지역을 4~5곳으로 나누어 개발하며, 정비가 이루어지는 시기동안 주민은 거점에서 생활하게 된다. 또한 정비가 끝난 후 개발된 주택에 입주하게 된다. 이 방식은 부분별 순환 정비가 가능하므로 원거주민 재정착이 쉽고, 주민주도형 정비 사업이 가능하며 공공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세밀한 정비계획과 컨설팅으로 주택개량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거환경개선사업 종류 및 내용

	내 용	장 점	단 점
공동주택방식	주공 등이 전면재개발	지역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됨	사업기간이 길고 세입자부담 증가로 재정착 어려움
현지개량방식	지자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주면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	지역사회가 계속 유지	주택개량 유인책 부족
거점확산방식	구역의 일부분만 공공이 수용하여 개발하고, 이외 지역은 주민이 현지 개량	재정착 가능. 기반시설뿐 아니라 주택개량이 활발히 진행	-

이상과 같은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환경까지 개선함으로써,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심하고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3)4)].

2) 사또시게루(2005), pp10~12.

3) 이창호, 임정민(2008), pp.17~37.

4) 홍인옥(2008)

2.2 주민참여의 방법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법은 창의적 발상에 따라 아주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초기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 실행 관점에서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단순하며 소극적인 주민참여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 실제 주민참여 기반 하에 주거환경을 개선해온 여러 국외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보다 훨씬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여러 연구진들이 소개하고 있는 주민참여의 방법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배웅규(2001)의 논문에서는 주민참여의 유형과 방식을 제도성 여부에 의한 제도적·비제도적 참여와 주도권(initiative) 소재에 따른 행정주도형·주민주도형 참여로 구분하였다. 또한 참여의 성격에 따라 직접적·간접적 참여, 개별적·집단적 참여, 능동적·수동적 참여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유택(1999)은 구역지정단계에서 공고·공람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들고, 계획수립단계에서는 관련인의 의견조사, 계획안공람 및 주민의견청취, 전문가의 자문, 공청회를 제시하고 있으며, 계획운용단계에서 특별한 주민참여가 없는 대신에 민원발생이 있다.

주민참여의 방법에 관해서는 김회진(1990)은 공청회, 워크숍, 위원회, 자문그룹, 주요 인사 면접, 매체를 통한 의견투입, 설문응답, 보고서, 대중매체, 현상논문, 앙케이트 등 13가지를 제안하고, 배웅규(1994)는 관찰조사, 문헌조사, 면담, 설문조사, 공청회 또는 간담회, 심층면담 등 5가지를 언급하고, 최영선(1995)은 전시회, 공청회, 계획관련 홍보책자의 발간, 설문조사, 아이디어공모,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투표에 의한 의견수렴, 공개자문회의, 델파이기법, 명목집단기법, 샤레트기법 등 11가지를 제시하고 있다.[5]

안창헌, 이연숙(2008)의 논문에서는 일본의 히라노지역 정비사례에서 활용된 5단계 24항목의 주민참여기법을 소개하였는데 교육 및 공동의식 함양단계에선 워크샵, 여행/시찰, 지도 작성/이용, 주민자치회가 있다. 또한 협의단계에서는 주민협의회, 주민자치회, 제도/조례,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문조사, 조사, 워크샵을 활용하였다. 홍보단계에서는 뉴스레터, 출판/발행, 웹 활용, 지도 작성/이용, 모델하우스, 워크샵, 여행/시찰을, 평가단계에서는 지도 작성/이용, 설문조사를, 시너지 효과 및 생활/문화향상단계에서는 사업화, 주민학습, 공모전, 페스티발을 활용하였다.[6] 이와 같이 다양한 주민참여기법을 한 사례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현장연구를 통해 소개하였다. 이러한 것에서 보듯이 주민을 참여시키는 기법은 기존의 여러 세계적인 사례를 보았을 때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으며, 재생의 상황이 다양하고 주민의 참여가 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현시대에 창의적으로 접근할 경우 더욱 다양한 방법과 기법들이 개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일본노다북구 주거지정비과정에서는 골목길이 정비될 때마다 새로운 이름을 지정하고 대지를 임시 사용해 주민들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였고 주민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뉴스레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하였다. 또한 환경이 정비된 이후에도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더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원칙이나 안내, 홍보활동 등이 이용되었다[7].

5) 배웅규(2001), pp.41~58.
6) 안창헌, 이연숙(2008), pp.171~176.

2.3 인지도

인지도란 사람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거나 조직해 놓은 공간 환경을 도식적으로 그려보게 하는 것으로 환경의 적응정도를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왔다. 결국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지도와는 달리 인지도는 사람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지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인 지도라 할 수 있으며 사람이 행동하는 기반이 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지도는 사람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길 원하는지 중요한 단서가 되는 자료이다. 인지도는 실제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그릴수도 있고 실제공간이 없어도 마음속에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캘빈린치의 도시환경 인지도를 들 수 있고 린치는 객관적 도시공간구조를 사람이 그 특성을 조직하여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구조라 하였다. 도시이미지 형성에 기여하는 물리적 요소를 통로(paths), 모서리(edges), 지역(districts), 교차점(nodes), 랜드마크(landmarks)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후자의 예를 들어보면 이선미(1995)는 새로운 주택을 보다 바람직하게 개발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이 어떠한 공간에서 살고 싶은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평면구성을 자유롭게 그려보도록 한 주부공모전 자료를 이용하여 그 그림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을 반투사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실제 물리적인 공간을 창조하는데 지침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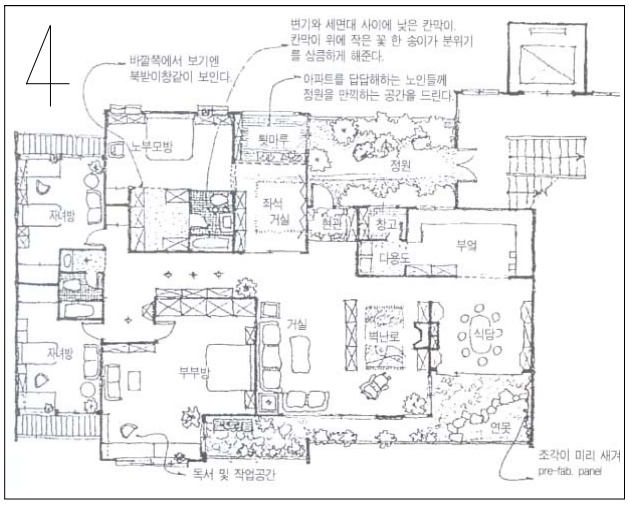

그림 1. 주부가 그린 이상적인 집 심적 지도

그림1은 당시 응모한 주부작품으로서 삼세대가 보다 갈등이 없이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즐기며 풍요롭게 살고 싶은 집 형상을 표현한 것으로 거의 도면에 가깝게 정교히 작성된 심적 지도이다. 이는 일반 기존공간의 주요특성을 추출한 인지도와는 달리 가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본인의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희망하는 그림을 표현해낸 것이다.

7) 박혜연, 안창헌, 이연숙(2008), p.303.
8) S건설이 1994년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앞으로의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고자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당시 2,000여점의 작품이 다양한 형태로 응모되었다. 즉, 개략적이며 구체적인 어휘를 주로 사용하여 표현한 것에서 정교히 도면형태로 표현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2.4 플레이스맵

플레이스맵과 커뮤니티맵은 지역 커뮤니티의 지역 공간에 대한 인식정도를 나타내는 지도로, 지역 주민에 의해 작성되고 수정 성장되며, 지역공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 및 활동 강도를 알 수 있는 도구이다. 이러한 것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 플레이스맵과 커뮤니티맵 외에도 최근의 야후코리아의 라이프맵과 같은 형태도 포함한다.

또한 특별히 장소성과 관련이 있는 것을 플레이스맵이라 지칭한다. 이것을 다룬 국내의 연구로는 이연숙(1989년)이 있으며 상계동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그 지역을 인지하고 공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인지적, 행태적인 맵을 그림2,3과 같이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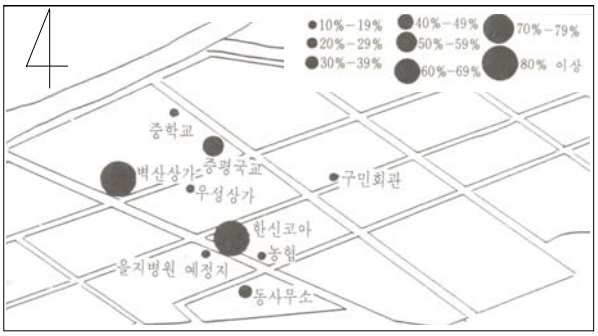

그림 2. 상계동 주거지역 주민들의 제반지역근린시설 인지도

그림 2는 상계동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장소를 실제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후 어느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비중을 점의 크기로 표현하여 실제 물리적 맵에 표현하였다.[9]

즉 플레이스맵은 아주 복잡한 구조와 구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간결하게 주민들이 상호작용하는 크기패턴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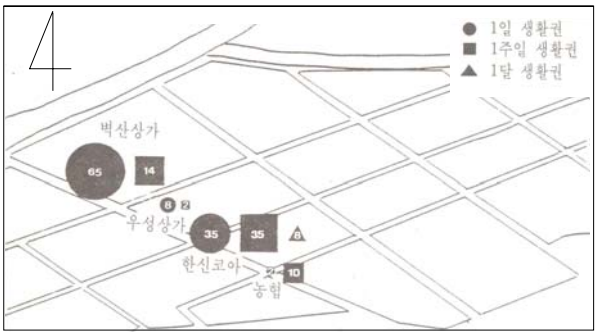

그림 3. 상계동 주거지역 근린지역시설 주민사용 행태도

한편, 그림3은 상계동 주거지역 환경내 거주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행태도로서 그것이 사용되는 생활권별을 다른 형상 아이콘으로 표시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비율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시설들의 크기와는 달리 사용되는 빈도 즉, 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정도를 크기로 표시하여 그 지역에서 주민에게 보다 의미있게 사용되는 공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10]. 이러한 지도는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삶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가장 최근에 플레이스 맵을 활용한 사례로는 Penny Travlou(200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지역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경험적 공간을 발견하기 위한 것으로서 플레이스맵을 사용하였으며 결과를 표현한 사례는 그림4와 같다.[11] 플레이스맵을 통해 청소년들이 어디를 선호하는지를 쉽게 알게 해줌으로써 이들을 위한 환경개선과 지역개선을 도모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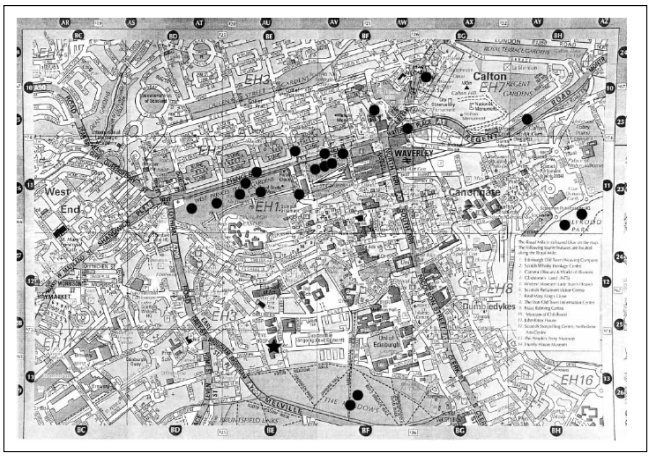

그림 4. edinburgh 도심 학생들의 지역선호 플레이스맵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지도는 그 지역의 구조를 알 수 있을 뿐이지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어디에서 일어나며 장소특성이 긍정적, 부정적 속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 검게 동그랗게 지도에 표시한 것은 이 지역 중 학생들과의 상호교류 차원에서 지역정서가 담긴 장소들을 추출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2.5 커뮤니티맵

커뮤니티맵은 주민들이 지역 환경을 행태적, 인지적 맵으로 파악하는데서 한 단계 발전하여 지역주민에 의해, 지역주민을 위해 만들어진 주민의 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 간에 서로 토론하여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이에 속하는 예제로 일본의 주거지정비 과정에서 사용되어온 '걸리버맵[12]'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주민들이 직접 지역을 돌아보며, 스스로 확인한 정보 등을 한자리에 모여, 직접, 대형의 '걸리버맵'을 작성하고 지역의 현안을 논의한다. 이러한 과정과 맵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상호 토의할 수 있으며, 직접 지도위에 공동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9) 이연숙 외(1990), p.185-200.

10) 상게서, p.195.

11) Travlou Penny(2008), p.315.

12) 걸리버맵: 소인국에 간 걸리버가 사용하는 맵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축척의 맵이 아니라 일정 지역을 확대한 소축척(1/100, 1/200, 1/300)의 대형(A1, B1, 전지 등 사이즈)지도, 많은 주민이 모였을 때 주민상호간 위치 파악 및 논의가 용이하다.

그림5. 걸리버맵을 이용한 지역특성 논의 장면

또한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야후코리아(kr.yahoo.com)의 라이프맵이 있으며 가(假)지도 위에 개인 사진(UCC)을 저장하고 타인과 공유하는 지도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또한 라이프맵을 이용하여 자신의 일상 사진을 시간과 위치정보에 따라 지도 위에 저장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서비스로서 예전처럼 '길 찾기' 중심이 아니라 지도와 사진을 연계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다. 라이프맵을 통해 관심 지역별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정보도 나눌 수 있다.

3.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사례지역으로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12지역 중 광주시 남구의 양림동을 선정하였다.

양림동은 주거지 재생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며,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첫째 주거지를 성공적으로 재생시키려면 그 지역의 보존해야할 요소가 어느 정도 이상은 있는 문화적인 자산이 높은 곳이라야 하며, 둘째 이들을 보존하려는 주민들의 자치적인 노력이 있는 곳이라야 한다. 예비답사 결과 양림동지역이 이들 두 조건을 만족시키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이 지역의 보존에 기반을 둔 개발가치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또 적극적이었으므로 본 사례지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조사대상 주민은 양림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고, 지역주민은 양림동 전체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인식하기 때문에 장소조사는 거점구역을 포함한 양림동 전체로 하였다.

그림 6. 사례지역인 양림동 내의 집단면담 실시장소 및 주변환경

연구방법은 현지 인터뷰를 하였으며 인터뷰는 매번 자생적인 집단식으로 행해졌다. 9월~10월에 걸쳐 6번 진행하였고 4곳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 인터뷰 당 1~2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룹인터뷰의 장소는 해당지역에서 사람들이 저절로 많이 모이는 장소를 예비조사를 통해 탐색한 후 총 4곳을 지정하였다(그림6, 표2).

즉, 본 연구 자료는 대상자를 불러 계획한 후 시행된 것이 아니라 인류학적 접근 방법처럼 자연적으로 주민이 모여 동네이야기를 교류하는 지역에 연구자가 동참하여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을 경험한 정성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면담한 주민들은 양림동에 거주한지 5년이 지난 총 18명의 주민들로서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행사에도 잘 알고 있는 인물들로서 커뮤니티맵의 기초컨텐츠를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표 2. 양림동 집단면담 개요

번호	일시	장소	인원
1	2008년 9월 4일	슈퍼(친목상회)	4명
2	2008년 9월 4일	슈퍼(친목상회)	3명
3	2008년 10월 1일	경로당	4명
4	2008년 10월 1일	세탁소	3명
5	2008년 10월 3일	주민센터	2명
6	2008년 10월 4일	주민센터	2명
합 계			18명

이런 집단들에 대해서 비구조화된 질문으로 크게 양림동을 대표하는 장소, 추억이 있는 장소, 앞으로 보존되어야 할 장소를 묻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교류하며 답하게 하였다.

예비답사 결과 세탁소와 슈퍼에선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장소였으며 주민자치센터와 경로당은 지자체에서 주민에게 제공하는 열려있는 공간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있거나 물건을 팔거나 특정한 목표로 지정이 된 곳에서 주로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교류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들 장소에 모인 주민들을 통해 동네에 관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교류되고 있다고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공간이었다.

집단면담은 연구자 2명이 진행하였으며 현장에서의 기록과 보조 장비로 녹음기를 활용하여 녹취하였으며 조사의 내용이 빠짐없이 기록되고 분석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활용되었다.

4. 연구자료 분석 및 결과

4.1 대상지역내 양림동 및 면담주민 특성

양림동은 과거에 양반들이 사는 곳으로서 현재에도 이장우 가옥, 최승효 가옥 등이 남아있다. 그러나 지금은 광주에서도 낙후된 지역으로 도로상황이 불량하며, 전체필지의 1/3이 영세필지인 만큼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한편, 면접대상자는 연구자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만나 교류하는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서 연구자가 방문 시 그 지역에 모여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대개 연령층이 50세 이상으로 남자가 대다수였으며 거주한지 5년이 지난 사람들로서 이 지역에 대해 애착감을 갖고 있고 비교적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로 파악되었다.

4.2 주민들에게 중요한 지역 내 장소추출

지역을 대표하고, 애착감을 느끼며, 보존할 장소에 대해 집단 면담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장의 표3과 같다.

첫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주요상징장소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선 일차적으로 교회, 선교사 무덤, 선교사 사택 등의 기독교관련시설과 한옥, 개비석, 정율성 생가를 언급하였다.

"..유진벨 목사가 오셔가지고 기독교 병원 만들고, 수피아여고 만들고 조선 사람들을 개화를 시켰어요. 광주에서는 제일 먼저 생긴 교회가 양림교회여. 전라남도 광산군 양림리더라고 여기가."

"정율성씨도 몇 년만에 알려진거요. 중국에서 각광받는지는 몰라도...우리는 모르고 컸지 근데 생가는 여기에 생겼고,"

기독교를 통해 이 지역은 병원, 학교 등 모든 기반시설이 구축되었으며 당시의 종교적 활동이 얼마나 지역사회에 많은 발전과 연루가 되어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양림 교회는 전통성이 있으면서 주민과 함께 성장해온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정율성 생가는 지역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발견하기위해 발굴한 것으로 최근에 상당히 많은 지역 사회의 이슈가 되어왔으며 관광코스가 되었다.

둘째 질문으로 애착심을 가진 장소를 물어본 결과 광주천부근의 빨래터 및 목욕장소, 옛 사직공원과 양림 오거리 그리고 인터뷰를 시행한 장소인 친목상회를 얘기하였다. 또한 옛 사직공원의 벚꽃, 광주천의 바위에서 나오던 샘물로 빨래나 목욕을 하는 장소 등을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시설들이 현재 부재하는데 대해서 매우 아쉬워하고 있었다. 이를 증명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외지에서도 많이 왔어. 광주시.. 직할시가 되기 전이여. 그 때 만해도 막 옮길 무렵에 직할시로 편입이 됐거든. 외지에서 전라남도 외지에서 많이 여기를 놀러를 왔거든. 관광버스 대절해서. 사직공원이 뭐가 또 유명했냐면 벚꽃이 많앴어. 벚꽃. 벚꽃은 그대로 있는데.. 다 없어져 버리니까 시민공원이 되어버렸다니까 공원. 공원 되고 나서 누가 잘 가지도 않애. 가끔 가."

"사직공원 밑에가 풀장이 요기가 놀이터, 허니문카 있었고 동물원 있었고...동물원자리가 공원이 됐지. 풀장은 20년 됐고 어린이대공원이 23년 정도 됐지. 다 없어지고 공원이 됐지만 안가지. 우리는 나이가 많아져서 잘 안가지.."

"풀장 옮긴지는 5.18 지나서였남. 그렇구만..."

"옛날에는 사직공원이 굉장히 좋았어. 벚꽃이 굉장히 유명했어. 지금은 벚꽃나무가 많이.. 10년 전만해도 어린이날 되면 들어갈 수가 없었어."

"추억의 장소는 동네에서 게임 놀이 놀게끔 윷자리 방석 하나 깔아서.. 우리 지금 윷놀이 하고 있죠. 이거 아주 추억이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했어요. 음력 대보름에 남구청 주최해서 윷놀이 대회가 있었어요. 넷이 나갔는데 둘은 떨어져 불고 나랑 둘이서 3등 했어, 3등. 쌀 한가마 해가지고 노인당에 갖다 드렸어. 아주 추억이지로."

"광주천이 잉어가 많애. 옛날엔 거기가 목욕도 하고 빨래도 했어. 물이 그렇게 좋아. 파출소 앞에 거기가 물이 그렇게 좋아. 목욕도 하고 그랬어. 생수라 해가지고 바위 속에서 물이 나와요.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광주천 밑에 바로. 다리 밑에. 차 다니는 밑에. 거기가 지금 내가 알기로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했어. 지금은 그 물이 없어버렸어. 지금은 막아 버렸는가 물이 안 나와."

표 3. 양림동 인터뷰 결과

조사 일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장소	애착감을 가진 장소	보존할 장소
1차	양림교회,개비석 정율성생가	친목상회	한옥3채
2차	양림교회,개비석, 정율성생가	사직공원동물원, 광주천	한옥3채, 개비석
3차	선교사무덤,한옥3채, 선교사사택,개비석	광주천	한옥3채, 개비석
4차	선교사무덤, 한옥, 개비석	오거리버스종점, 광주천,사직공원	한옥3채, 개비석
5차	교회	오거리이층집, 광주천	한옥3채, 개비석
6차	교회, 한옥	광주천	한옥3채, 선교사무덤

셋째, 보존해야할 장소에 대해선 한옥 3채와 개비석, 선교사무덤을 얘기하였다. 이를 증명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동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오거리에서 저쪽 큰길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개비석 쪽으로 나가는 길. 가다 보면 오래된 한옥이 3갠가 있어요. 오래된 한욱이. 대궐같은 한옥. 주민들이 그래요. 이건 철거하지 말고 보존해야 된다. 한옥이 아주 옛날 양반집으로 해가지고 기와집. 옛날 안동에 가면 있는 그런 집이예요. 현대 극장 사장님이 옛날에 거기 살았어요. 내가 알기론 그래요."

"양림동의 개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개가 주인을 구했다 그래서 개비석이여. 충견.. 1년에 한 번씩 무슨 행사를 하는 거 같던데. 옛날 어르신한테 들었는데. 한양에 갈라면은 개가 따라가 갖고 옛날 돈은 안에 구멍이 있으니까 거기 찔러주면은 개가 밥값 받고 갈라재 아니면 개가 안 갈라 그려. 그런 전설이 있어."

이와 같이 주민들과의 집단면담을 통해 일종의 스토리텔링기법으로 지역에 관한 전반적인 특성과 구체적인 장소 특성이 정리되었으며 이는 향후 커뮤니티맵이 완성될 때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컨텐츠가 될 것이다.

4.3 양림동 지역 스토리텔링의 컨텐츠들의 세 축

양림동 주민들에게서 나온 지역의 특성내용을 종합적으로 얘기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종교적 측면의 자원으로서 이 지역은 선교사에서 시작하고 수없이 많은 지역 내의 환경이 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또 주민들에 대한 보살핌도 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종교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에 속하는 장소들로는 양림 교회, 수피아 여고, 기독 병원, 숭일 고등학교 등을 들 수 있다. 그 증명사례를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아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있어요.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목포로 해서 들어왔더만. 양림 교회를 왜 택했냐. 여기가 옛날에는 산이고 공동 묘지더만 여기가.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교회자리가. 한옥도 몇 개 없었어요. 유진 벨 목사가 1895년 정도 되더만. 그때 와가지고 양림동에 교회를 지으면서 그 수피아 여고를 지었고. 그 다음에 기독병원. 숭일 고등학교가 여기 있었어."

둘째, 민주역사적 측면으로 이 지역은 19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이 관련이 되어있으며 이 지역사람들이 라이프스토리를 얘기할 때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시간적인 축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이를 증명

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내가 생각하기로 풀장은 20년 됐고, 어린이 대공원이 한 20~3년 되겄고. 가만있자 5.18 지나서였는감? 아마 그쯤 될 것이여."

셋째, 전통문화적 측면으로 서울과 달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서 한옥보존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거기가 사장집이고 몇 개 있거든요 고광표집하고 두갠가 세갠가 있어. 아주 옛날에 오래된 집이여. 옛날 안동에 가면 한옥이 있다고 그런 집이에요 거기가"

이와 같이 주민들은 이 지역의 특성을 종교적 측면, 민주역사적 측면, 전통문화적 측면으로 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 자긍심이 높았다.

4.4 양림동 내 장소특성

지금까지 주민들의 이야기로부터 추출된 특성을 지도에 종합적으로 표시하면 다음(그림7)과 같다.

그림 7. 주민에 의한 양림동 커뮤니티맵 기초 컨텐츠 종합도

이와 같은 커뮤니티 맵은 객관적 물리적 지도와는 달리, 주민들의 의식과 정서에 기반을 둔 사항들이 표현된 지도로서 커뮤니티의 이해를 돕는 도구이기도 하다.

지역 주민들간 추억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즉, 애착공간으로 선정된 공간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장소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속하는 장소는 광주천, 사직공원, 양림오거리, 친목상회 등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광주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 등과 연계한 '역사와 빛과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를 표현하기 위해 2007년 교량개선사업을 시행하였다. 현재는 이러한 개발 등으로 인해 광주천의 옛 추억에 관한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기는 어렵다.

② 사직공원: 1943년 4월 19일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벚꽃길과 동물원으로 유명한 곳이었으나, 현재는 산책로만 조성되어있다.

③ 양림오거리: 종점 버스가 다니던 곳으로 이층으로 된 가옥 등 과거엔 부자들이 거주하였다. 현재도 오거리 주변에 상가들이 밀집해있으며 주요 간선도로축에 접하지 않고 도로상황도 열악한 편이지만 오거리를 통해 주민들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④ 친목상회: 지역주민들이 윷놀이를 하는 유일한 장소로서 주민이 모여서 마을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도 하는 등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는 장소이다.

애착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밀착이 된 그런 공간으로서 주로 친환경속성을 가진 공원 혹은 주민들이 모여서 교류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이다. 역시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은 그 지역의 유명한 장소가 아닌 개인의 정서적 경험과 밀착되는 것으로서 주민들 간에 상호작용을 볼 수 있는 자연적, 사회적 장소가 도출된 것이다.

또한,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는 장소로는 이 지역의 정체성과 고부가가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존해야할 장소로서 선교사무덤, 개비석, 한옥3채를 언급하였다. 이는 앞서 상징공간에 선정된 것으로 교회보다는 선교사 무덤, 한옥, 민간스토리를 지닌 개비석이 일반주민에게 보존가치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지역주민에게 있어서 한옥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에게 지속가능성을 주는 하나의 공간적인 구심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의 분석결과 도출된 장소를 표시한 기초적 커뮤니티맵은 이 지역의 객관적 복잡한 지리지도위에 표시됨으로서 이 지역특성을 주민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단순한 형태로 이해되게 하였다. 이러한 자원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주거지가 정비되고 지역발전전략이 구상될 때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또 정비방향이 이에 의해 정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5. 결 론

한국의 주거지는 재개발이든 현지개량이든지 간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재생되는데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어 왔다. 그 핵심적인 지적 중에 하나로 주민을 참여시키고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삶을 존중하는 부분이 미미하며 주민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딜레마가 되도록 지속시켜왔다.

주민참여는 단순히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역주민이 생활해온 터전을 이해하고 지역주민의 삶이 어떻게 지역에 연루되어 왔는지 파악하는데서 시작한다. 이 시작을 통해 주민참여의 기반은 마련된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수많은 시행착오 경험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빠르게 주거환경개선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또한 앞으로의 도시계획이 신도시개발이 아니라 인구학적 특성과 산업구조

변화 및 제반사회 변화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으로 가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거지 재생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도모하는 초기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지역주민이 인지하는 지역의 상징적 장소, 애착장소, 보존장소를 추출해내고 이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특성에 대한 파악은 정량적 접근보다 삶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인류학적 접근속성이 있는 정성적인 연구방법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결과 주민들이 인지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장소, 지역의 애착감을 느끼는 장소, 보존하길 원하는 장소가 파악되어 일차적인 커뮤니티맵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재생대상지역이 단순히 물리적, 지리적 맵이 아닌 주민들의 삶과 감성이 녹아있는 커뮤니티맵으로 전환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작업은 마을을 잘 아는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나 자료를 수집한 장소가 동네의 소식들이 교류되는 지역들이어서 지역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정보라고 생각되므로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연구의 결과 지역을 대표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지역 내 장소들이 7가지로 추출되었고 이들의 특성은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소중한 문화적 자원이라 할 수 있으며, 민주, 역사, 종교, 전통, 문화예술, 생활 등에 유관한 장소들이 추출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하나의 커뮤니티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 컨텐츠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거지 재생지역에서 발견된 주민의 삶과 깊게 연루된 이러한 자산은 주거지 재생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적극 활용되어야하고 또 실제 주민참여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고 애착감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장소들은 앞으로 이 지역이 발전하거나 존중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편적 기준으로 철거를 한다거나 인접한 곳에 지금까지의 방식인 고층아파트를 획일적으로 배치하는데 있어 재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단서적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개발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지구를 완전히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현대식 건물을 건설한다면 지난 오랜 역사동안 그 지역이 지녀온 커뮤니티를 제거하는 결과가 되므로 경계 혹은 방지해야한다. 본 지역의 이러한 결과는 왜 주거환경개선이 기존의 철거 후 재개발 방식처럼 가지 않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이후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폭을 확대하여서 좀 더 정교하고 일반화될 수 있는 주민들의 커뮤니티맵 등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역의 문화적 자원은 여러 측면에서 정교히 점검될수록 그 지역을 이해하고 개선해나가는데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참여하여 커뮤니티맵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기존의 면접방법은 물론 디지털정보기술을 이용한 UCC등 자생적 참여방법도 바람직 할 것이다. 이것이 주민들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어지고 또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운동이 주민스스로에 의해 확산되고 주민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때 주민참여의 기반은 자동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본연구의 결과를 시작으로 진정한 주민에 의한 커뮤니티 맵이 만들어져서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주민참여와 각종 도시계획의 과정에 있어서의 합의가 이루어져 각 지역에 맞는 재생이 진행된다면 이후 도시와 마을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는 사례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영환(2001), 영국의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계획의 특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36-1, pp.151-153
2. 김현식, 이영아(1996.12), 도시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내부보고서
3. 박혜연, 안창헌, 이연숙(2008) 일본 노다 북부지역 마을만들기 및 주민참여기법 사례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8-2, pp.299-304
4. 배웅규(2001), 지역단위의 도시정비를 위한 주민참여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사또 시게루 저(2005), 민현석역(2008), 마을만들기 디자인게임, 서울시정개발원
6. 서수정(2007), 지속가능한 개발과 뉴어바니즘 이론의 적용에 의한 영국 버밍험시 도시재생의 특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42-7, pp.125-143
7. 송혜승, 이명훈, 이명규(2008.06),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의 선호사업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43-3, pp.37-53
8. 신중진, 신효진(2008.2),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계획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2, pp.109-120
9. 안창헌, 이연숙(2008) 일본 히라노지역의 주거지 정비의 과정에서 활용된 주민참여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8-2, pp.171-176
10. 윤혜경(1989), 학교생활공간 환경의 인지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 이륜정, 이제선(2008), 도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방안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협동학술대회자료집, pp.331-340
12. 이선미(1995), 이상적인 아파트 실내공간에 대한 심적 지도의 내용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 이연숙 외(1990), 거시적 관점에서 본 도시인의 생활행태와 지역사회시설 이용정도 및 요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6-2, pp. 185-200
14. 이연숙(1998), 실내환경심리행태론, 연세대학교 출판부,
15. 이창호, 임정민(2008),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을 위한 운영 방안, 주택도시연구원 내부발표자료
16. 하진목, 오덕성, 최준성(2008), 영국의 노후 주거단지 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35-144
17. 홍인옥(2008),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의 사회경제적 지원방안연구, 한국도시연구소 내부발표자료
18. Travlou, Penny(2008), Place mapping with teenagers: locating their territories and documenting their experience of the public realm, Children's Geographies vol 6, pp.309-326

투고(접수)일자: 2008년 11월 18일
심사일자: 2008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12월 24일